

■ 잇따르는 여수산단 정전피해

5년새 3번... 책임공방 일دت

지난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또다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 석유화학공장이 밀집해 있는 여수산단의 경우 어 순간 정전만 발생해도 공장 가동이 중단돼 수백억원대의 피해가 발생...

자기 멈추면서 각종 장치와 설비에 무리가 갔을 것으로 보고 공장 측은 시스템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장치산업인 석유화학 공장의 특성상 공장 정상 가동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날 정전으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공장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전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측은 “여수화력발전소에서 용성발전소로 가는 2개 선로 중 1곳에 강풍으로 인해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다 이상이 발생하며 순간 정전이 일어났다”며 “자세한 원인은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 순천전력소 관계자는 “저전압으로 모터에 부하가 일어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 저전압이 일었는지,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등을 밝혀내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다”면서 “이날 사고는 인재라기보다는 전기적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GS칼텍스 등 산단 기업들은 한전이 관리하는 전기 선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전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도 일 것으로 보인다. 정전이 한전의 책임으로 드러나면 업체들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GS칼텍스는 “1차 정전은 선로 이상이었던지 여수화력발전소가 과부하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전력공급을 차단하면서 20여분간 전력이 끊겨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로 여수산단 내 불안정한 전력 체계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잦은 정전 사고에 대해 근원적 대책 마련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 박성태기자 mihang@

입주기업·연관업체 피해액 천문학적 정전 원인 안 밝혀져... 근본대책 시급

여 개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업체들은 공장 정상화를 위해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공장 재가동까지는 수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자칫 피해액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6년 4월과 5월, 2008년 5월 두 차례 두 잇을 만나며 발생하고 있다.

2006년 4월 사고 때에는 GS칼텍스와 LG화학 SM공장 등 5개 업체에서 공정이 중단돼 120여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2008년 5월 3일에는 정전으로 여천NCC와 한화석유화학 등 10개 업체의 공장 가동이 중단돼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3일 뒤 또다시 여천NCC 3공장 안에 있던 변압기가 폭발해 해당 공장과 원료를 공급받는 대림산업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이번 정전 사고는 2008년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당시보다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규모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보해 복분자’ ‘순금매추’ 설 선물세트 출시

보해가 설을 맞아 웰빙, 실속, 고급스러움을 갖춘 전통주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지난해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영부인 오찬행사의 건배주로 선정된 ‘매추순 10년’은 국산 최고급 청매실을 원료로 10년간 숙성시킨 프리미엄 매추순 맛과 깊고 부드러운 향이 은은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2006년 4월과 5월, 2008년 5월 두 차례 두 잇을 만나며 발생하고 있다. 2006년 4월 사고 때에는 GS칼텍스와 LG화학 SM공장 등 5개 업체에서 공정이 중단돼 120여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2008년 5월 3일에는 정전으로 여천NCC와 한화석유화학 등 10개 업체의 공장 가동이 중단돼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3일 뒤 또다시 여천NCC 3공장 안에 있던 변압기가 폭발해 해당 공장과 원료를 공급받는 대림산업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맛과 향 일품 ‘진로 동의보감 복분자’

(주) 진로가 설 선물세트 주력상품으로 ‘일품진로’, ‘진로 동의보감 복분자’, ‘매추순’ 등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대한민국 술의 전통과 술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일품진로는 풍드셀렉션 증류주부부 대상을 수상해 마시는 이의 품성을 표현, 애주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지역경제부흥공 제2011-20호 시민을 따뜻하게 감동시켜 드립니다

2011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힘·융합이 이끄는 기술혁신”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소제기업과 대상을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1. 지원내용(공통사항)

- 1. 지원대상
- 수도권(제외) 13개 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 지방(수도권 제외) : 지역유형별 지원대상 지역 및 전략산업(특화분야) 참조

- 2. 지원유형
- 지원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Table with 4 columns: 구분,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기간. Rows include 지역유형별, 연구개발형, 사업개발형, 사업유형별, 연구개발형, 사업개발형.

- 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한도비율
- 연구개발형 또는 사업개발형 지원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한도비율이 정해짐
- 민간부담금 한도비율은 중소기업이 주권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Table with 4 columns: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한도비율. Rows include 1개, 2개 이상.

- 4. 기술료 납부
- 연구 개발: 최종연구보고서, 연구개발비,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연구개발비에 유관하게 기술료를 납부

Table with 4 columns: 주관기관 유형, 대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Rows include 연구개발형, 사업개발형.

-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사업개발형 및 원형
- 사업개발형: 접수(1.21) - 사전검토(1.22) - 평가위원회 평가(1.23) - 평가결과통보 및 의사신청(1.23)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24) - 평가완료

Table with 3 columns: 평가항목,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및 사업성, 사업추진계획, 기비(10%). Rows include 세부 항목: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사업개발 목적의 적정성,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사업개발 목적의 적정성,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다. 다음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중소기업 주관기업이 아닌 대학·연·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중요 기술개발의 관련 기업(기관)의 컨설팅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다. 다음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중소기업 주관기업이 아닌 대학·연·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중소기업 주관기업이 아닌 대학·연·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다. 다음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중소기업 주관기업이 아닌 대학·연·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중소기업 주관기업이 아닌 대학·연·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다. 다음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중소기업 주관기업이 아닌 대학·연·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중소기업 주관기업이 아닌 대학·연·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다. 다음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중소기업 주관기업이 아닌 대학·연·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중소기업 주관기업이 아닌 대학·연·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다. 다음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중소기업 주관기업이 아닌 대학·연·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중소기업 주관기업이 아닌 대학·연·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다. 다음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중소기업 주관기업이 아닌 대학·연·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중소기업 주관기업이 아닌 대학·연·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다. 다음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중소기업 주관기업이 아닌 대학·연·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중소기업 주관기업이 아닌 대학·연·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다. 다음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중소기업 주관기업이 아닌 대학·연·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중소기업 주관기업이 아닌 대학·연·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경제



光銀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17일 오전 광주은행이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송기진 은행장과 임원, 부점장 등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전남 수출 첫 400억달러 돌파

광주세관 '2010 수출입 동향' ... 전년비 30.5% ↑

광주·전남이 지난해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사상 첫 400억달러를 돌파했다. 광주본부세관이 18일 발표한 '2010년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30.5% 증가한 419억 9700만 달러, 수입은 27.8% 증가한 404억 6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고르게 수출이 늘어 전년 대비 30.4%가 증가한 115억 8100만 달러, 수입도 경공업업종(85.5%), 화공업(40.7%) 등 전 품목이 늘어 전년 대비 35.9% 증가한 55억 5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남은 수출이 전년 대비 30.6% 증가한 304억 1600만 달러로 첫 수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수입도 전년 대비 26.6% 증가한 349억 1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금호고속 새 노조 3차 파업

21일부터 10일간... 설 귀성객 불편 불가피

민주노총 소속 금호고속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10일간 3차 파업을 벌인다. 지난해 18일과 이날 초에 이어 세 번째 파업이다. 특히 이번 파업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을 불모로 한 것 외에도 시민들의 비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이번 파업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을 불모로 한 것 외에도 시민들의 비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은 또 “금호고속 전체 승무사원 2000명 중 100명 내외의 인원이 운행허가부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며 “설을 앞두고 귀성객을 불모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코스피지수 2,099.85 (+8.32)
코스닥지수 533.01 (-2.19)
금리 (국고채 3년) 3.71% (+0.02)
원·달러 환율 1,117.60원 (+2.80)

지역경제부흥공 제2011-20호 시민을 따뜻하게 감동시켜 드립니다

2011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Detailed notice for the 2011 Regional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It includes eligibility criteria, application procedures, evaluation criteria, and a list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with their contact information.